◈며느리 권씨 열전 28-4

숙의 권씨(권중비 추밀공파 19世, 권완의 딸), 단종대왕의 후궁

권중비의 가계

역사는 왕의 이름으로 기록되지만, 그 그림자는 늘 한 여인의 삶 위에 길게 드리운다. 숙의 권씨, 곧 권중비(1439~1521). 그는 권력의 중심에 서 있었으되, 단 한 번도 스스로 중심에 서 본 적은 없는 여인이었다. 그의 삶을 더듬어 올라가면, 한 집안의 흥망과 한 시대의 비극이 고스란히 얽혀 있다.

아버지는 권완이다. 본관 안동. 음보로 관직에 나아가 사정(司正)을 지내고, 행돈녕부판관을 역임한 문신이었다. 정6품의 자리는 높다고 할 수는 없으나, 결코 가벼운 자리도 아니었다. 감찰을 맡고, 왕실 친족 업무를 다루는 직책은 곧 왕권의 그림자와 맞닿아 있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은 관직보다도 1457년의 칼날로 기억된다. 단종 복위운동에 연루되었다는 죄목. 그 죄는 역모로 규정되었고, 형벌은 능지처참이었다. 살점이 찢기고 가문이 흩어지는 형벌. 재산은 몰수되고, 친족은 연좌로 화를 입었다. 충의(忠義)로 읽을 것인가, 역모(逆謀)로 기록할 것인가. 역사는 왕조의 편에서 적었지만, 가문은 피로 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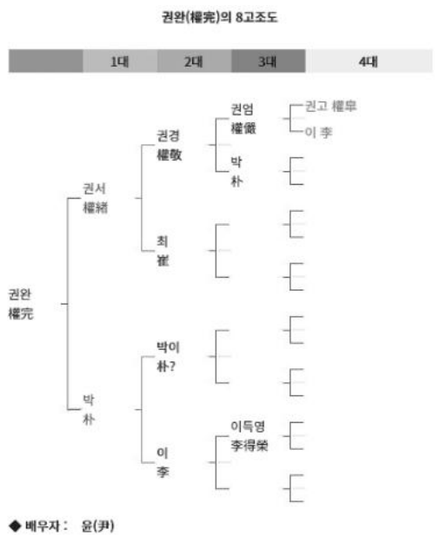
그의 장인, 곧 권중비의 외조부는 윤지정이었다. 파평 윤씨의 문신으로, 세종과 문종 대에 활동하였다. 학문을 닦고 관직을 거쳐 나라에 봉사하던 전형적인 사대부. 직접 칼을 들지도, 정변의 선두에 서지도 않았다. 그러나 조선에서 혼맥은 또 다른 정치였다.

사위가 역적으로 몰리자, 외손녀의 신분도 함께 흔들렸다. 왕의 후궁이던 권중비는 하루아침에 역적의 딸이 되었다. 가문의 울타리는 학문과 예의로 지어졌으되, 무너질 때는 칼 한 자루면 족했다. 윤지정의 생몰년은 또렷이 남지 않았으나, 그가 겪었을 심정은 기록보다 더 무거웠을 것이다. 한 사람의 정치적 판단이, 한 가문의 운명을 갈랐다.

또한 족보에 전하는 권완(權完)은 추밀공파 18세손으로 적혀 있으나, 관력과 혼맥의 기록은 서로 엇갈린다. 형 권영(權寧)이 1435년 청양현감에 제수된 사실은 연대상 부합하지만, 부인 기록과 직위에서 차이가 있다.

그리고 8고조도의 권완은 5대조 권고(權皐)는 이씨(李) 부인을 맞이했고, 고조부 권엄(權儼)은 박씨(朴) 부인과 혼인했다. 증조부 권경(權敬)의 부인은 최씨(崔)였고, 조부 권서(權緖)는 또 한 분의 박씨(朴) 부인과 가문을 이었다. 권완(權完)으로 나오는

권완(權完)의 족보, 이외에도 족보에 빠진 사람이 많은 것이다. 며느리 권씨 취재중, 전자족보에 등재되지 않은 인물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어, 'AI 족보 시스템' 구축을 생각하고 최초 족보 성화보, 최초 전자족보에 이어 최초 AI족보를 시도하고 있다,



이 8고조도가 가장 숙의 권씨 족보에 근접한 정보이다, 족보의 90%라고 해도 5대조까지는 정확하고, [나]를 중심으로 한 생물 DNA와 함께 정신적, 신체적 정보로 유용할 것이다.

바 이것이 맞을 것이다.

權守平(권수평) 10世는 추밀공파조로 추밀공을 지냈으며, 權위(권위) 11世는 충헌공이고, 權단(권단) 12世는 문정공이며, 權溥(권보) 13世 또한 문정공이다. 權皐(권고) 14世는 李氏를 부인으로 맞아 충정공에 이르렀고, 權儼(권엄) 15世는 朴氏를 배필로 하여 판서공 계림부윤(경주시장)과 판서(장관)를 역임하고 1379년 향년 70세로 별세하였다. 權敬(권경) 16世는 崔氏와 혼인하여 판서(장관)를 지냈으며, 權緖(권서) 17世는 朴氏를 배필로 낭장(정6품 무장)을 지냈다. 이어 權完(권완) 18世는 尹氏(파평, 윤지정의 딸)와 혼인하여 司正과 行敦寧府判官을 역임하였다.

세 여인의 부친, 인물의 직급과 위상

단종 복위 사건에 얽힌 세 인물, 곧 송현수, 김사우, 그리고 권완의 관직을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난다. 그들은 결코 조정을 좌우하는 정승·판서급 대신이 아니었다.

송현수는 풍저창 부사를 지냈다. 풍저창은 세곡과 군량을 저장하는 국가의 창고 기관이다. 부사는 실무를 총괄하는 종5~정6품급 관직. 중앙 행정의 실무 책임자라 할 수 있다. 그의 딸은 단종비 정순왕후로 간택되었다. 관직보다 더 큰 영향력은 바로 그 혼맥에 있었다.

김사우는 예원군사를 지냈다. 군 단위 행정과 군사를 관할하는 종6품 내외의 지방관. 지방에서 일정한 병권을 행사하는 위치였기에, 조정의 눈에는 잠재적 변수로 비쳤다. 지방의 군사력은 언제나 중앙 권력에게 불안 요소였다. 그래서 군권 박탈 주청이 세조년간 실록에 나온다.

권완은 사정과 행돈녕부판관을 역임하였다. 사정(司正)은 사헌부 소속의 감찰관으로 정6품, 행돈녕부판관 역시 정6품급이다. 중앙의 감찰과 왕실 친족 업무를 맡는 자리. 권력의 심장 가까이에 있으되, 그 맥박을 바꾸지는 못하는 위치였다.

이들의 품계는 대체로 정6품 안팎. 조선의 위계로 보면 중하위 관직에 속한다. 그러나 역사는 품계순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조선 정치에서 더 무서운 것은 직급이 아니라 혼맥이었다. 단종의 장인과 인척이라는 사실, 그것이 곧 죄목이 되었다.

수양대군 이유, 곧 훗날의 세조가 왕위에 오르는 과정에서 제거된 것은 고위 대신만이 아니었다. 왕권을 둘러싼 혈연의 그물, 그 연결선에 서 있던 인물들 또한 함께 잘려 나갔다. 관직은 낮았으나, 관계는 깊었다. 품계는 높지 않았으나, 혼맥은 왕실에 닿아 있었다.

글 권오칠 기자

'안동향손사적통록' 분석 3

한류문화苑 (대표 권오철 부정공파35世)

안동웅부, 공민왕의 친필, 안동에 두달간 임시 고려정부가 있었다. 사진 네이버

『안동향손사적통록』을 중심으로 한 분석에 따르면 조선 후기 경상도 감영(監營)의 행정 운영은 표면적으로는 중앙에서 파견된 관찰사가 책임지는 구조였으나 실제 실무 운영의 핵심은 안동 출신 향리 집단이 장기간 장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조선 건국 이후 영조 43년인 1767년까지 확인되는 경상도 감영 영리 약 958명을 분석한 결과 안동 출신의 비율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증가하였으며 17세기 초에는 감영 영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18세기 중엽 이후에는 3분의 2 이상을 점유하였으며 이러한 구조는 갑오경장 이전까지 지속되었다. 이는 단순한 인원 비중의 확대가 아니라 감영 조직의 핵심 직임이 특정 지역 출신 인물들에 의해 네트워크화되고 사실상 세습되는 구조로 고착되었음을 의미한다.

안동 향리의 영향력은 영리 직임에만 한정되지 않았다. 감영 실무 체계를 구성하는 통인과 계서 등 하위 실무직에서도 안동 출신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였다. 영리는 3분의 2 이상이 안동 인물이었고 통인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계서 역시 약 3분의 2가 안동 출신이었다. 통인과 계서는 문서 전달과 보고 체계 유지, 회계 및 기록 업무 등 감영 행정의 핵심 기능을 담당하는 자리였으므로 경상도 감영의 행정 체계 전반이 안동 향리 중심으로 운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감영 조직은 외무 담당과 내무 담당으로 구분되었는데 외무 담당은 각 군현에서 차출되어 군현 감독과 규찰 기능을 수행하였고 내무 담당은 감영 자체 운영을 맡는 영인리였다. 경상도의 경우 외무 담당 영리는 약 80명으로 충청도의 41명보다 많은 규모였으며 3번제로 운영되어 1회 입번 시 15명이 근무하였다. 구성은 이방 1명, 호방 2명, 형방 2명, 병방 1명, 공방 1명, 승방 1명, 통인 2명, 계서 4명으로 육방 중심 체계를 이루고 있었는데 이 핵심 직임 다수가 안동 출신으로 채워졌다.

고종 4년인 1867년 경상도 관찰사로 부임한 이참현의 일기 기록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전한다. 그의 기록에 따르면 감영 영리들은 안동의 권생원·김생원 계열 인물들이었으며 평상시에는 유학자 복식을 착용하고 입번 시에만 관복을 입었고 육방이 감영 업무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었다. 이는 향리가 단순한 아전이 아니라 사족적 성격을 지닌 지역 엘리트로 기능하며 행정 실권을 행사했음을 보여준다. 다만 그는 후대로 갈수록 학문적 역량보다 인맥과 청탁에 의해 입번하는 사례가 늘어났다고 지적하여 향리 집단 내부의 질적 변화와 세속화를 비판하였다.

또한 안동 출신 감영인 권재장은 제문에서 적절한 인재가 아니면 공사 모두가 망한다고 언급하여 감영 실무의 중대성과 자신들의 전문성을 강조하였다. 이는 안동 향리 집단이 문서 작성 능력과 회계 능력, 행정 경험의 연속성을 근거로 자신들의 독점 구조를 정당화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종합하면 조선 후기 경상도 감영은 단순히 관찰사 중심으로 운영된 기관이 아니라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안동 향리 집단이 장기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한 행정 체계였다. 이 사례는 조선 후기 지방 행정이 혈연과 지연을 기반으로 한 지역 엘리트 집단에 의해 구조화되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19세기 후반기의 경상도 영속(營屬) 출신 지역별 분포

출신지	본관	성씨(및 관직별 인원)					비고
			기관(記官)	통인(通引)	기사(啓書)	서원(書員)	소계
안동(安東)	안동(安東)	김(金)	33	11	3	1	48
^	^	권(權)	21	5	1	9	36
^	의성(義城)	김(金)	5	6	2	2	15
^	해주(海州)	오(吳)	1	1	0	0	2
의성(義城)	의성(義城)	김(金)	0	1	1	0	2
^	김해(金海)	이(李)	0	1	0	0	1
^	이천(利川)	서(徐)	0	1	0	0	1
경주(慶州)	경주(慶州)	이(李)	1	0	1	0	2
영해(寧海)	영해(寧海)	윤(尹)	3	3	9	1	16
해주(海州)	해주(海州)	오(吳)	1	5	3	2	11
청송(靑松)	청송(靑松)	신(申)	0	6	1	5	12
영덕(寧德)	영덕(寧德)	최(崔)	1	0	0	0	1
경산(慶山)	밀양(密陽)	박(朴)	0	1	0	0	1
고령(高靈)	고령(高靈)	이(李)	0	0	0	1	1
성주(星州)	성주(星州)	이(李)	1	0	0	0	1
청송(靑松)	청송(靑松)	윤(尹)	0	1	0	0	1
의성(義城)	의성(義城)	주(朱)	0	0	1	0	1
평해(平海)	평해(平海)	윤(尹)	0	0	0	1	1

영과 육의 치료의 샘터

권용만 교수(동양철학, 심리학박사)

제 4장 제 몸은 알아야지

1. 가장 귀한 것

세상에서 제일 귀하고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그야 물론 누구나 대답은 제 몸이라고 할 것이다. 내가 없으면 세상도 아무 것도 없는 것이요, 또 있다 한들 아무 의미가 없다. 식상할 만큼 들었겠지만 "돈을 잃는 것은 조금을 잃는 것, 신용을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 건강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라고 한다. 이는 목숨을 두 개 가진 사람은 없으니 그 누구도 부정을 이 말을 부정하지 못한다는 뜻이리라. 그러나 우리네 생활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못하다.

미국사람들의 배우자 선정기준을 보면, 첫째로 건강, 둘째로는 유머라고 한다. 즉 육체와 정신건강을 1.2위로 하고 있다는 말이다. 우리는 돈, 학벌, 직업, 외모… 이런 식이다. 중병이 들어 병원에 가서 들어 눕기 전에는 전혀 건강에 관심이 없고 몸을 함부로 굴린다. 우리 사회 문화는 언제부터인가 돈과 유흥문화에 젖어 있다. 청소년의 범죄의 대부분이 유흥비 마련을 위한 것이다. 다 성인들에게서 보고 배운 것이다. 제발 몸 관리 잘 하고 몸가짐을 바로 가져야 한다는 말이다. 몸가짐이 인격이요, 신앙이다. 제발 돈 한 푼 더 벌려고 몸을 망쳐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왜 스스로 일만으로도 힘들 터인데 밤새워 술 마시며 몸을 망가뜨리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지만 이것이 현실임 것을 어쩌랴. 이런 삶은 죽을 때 후회하고 후회가 남으면 죽어서도 좋은 곳으로 가기가 어려운 것이다.

건강관리는 헬스클럽도 아니요 정기검진을 병원에서 받는 것만으로 족한 것일까? 이 도한 필요한 것이지만,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제 몸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바둑, 스포츠 댄스, 요리강습, 꽃꽂이, 등… 별의 별 것을 다 공부하러 다니면서 왜 제 몸에 대해서는 공부하려 않는 것인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몸인 줄을 알면서도 말이다. 건강과 신앙은 종교나 병원이 해결 해 줄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몸이 병이 나고 영혼이 망가져서 찾는 것은 사후 약방문인 것이다. 자기 스스로 할 수가 잇는 것이다.

의학이나 건강서적, 수 많은 매체의 건강상식코너들이 하루에도 수없이 쏟아지는데 무엇을 어떻게 공부한다는 말인가? 생명도 하나님도 사랑도 없는 피상적인 것에는 그 해답이 나올 리가 만무하다. 우선 이 생명과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진정한 자기 사랑을 알면은 그 해답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뜻이 있으면 길(스승)을 만난다. 모름지기 뜻은 높이, 몸은 낮게 살아 가자!

2. 체질

TV 드라마 '태양인 이재마'의 방영으로 대형서점 건강코너에는 체질론에 대한 서적이 무수히 나왔는데, 이재마의 사상체질을 비롯해서 오행체질, 팔상체질, 28체질, 32체질 심지어 주역에서 온 64체질까지 있다. 독자들은 지레 겁먹지 말고 체질에 관하여는 개의치 않기를 바란다.

체질론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같은 환자를 매번 다르게 판정하는 예가 아주 많이 있다. 다시 말해서 이 구분에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그 많은 음식을 체질에 따라 구별하여 먹으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여러가지 주장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자연의 이치에 따른 '음'과 '양'의 둘 뿐이라는 이야기다. 혈액형이 A,B 형은 '음'이고 AB, O형은 '양'이다.

'음'의 체질은 날씬하다. 병이 들 때에는 더욱 마르고 수족이나 몸이 차갑고 주로 팔 다리 등 왼쪽 부분으로 저린 증상이 나타난다. 음의 체질은 대게 저혈압이지만 고혈압으로 바뀌면 반신불수가 된다. 그러므로 음의 체질은 몸이 차거나 지나치게 체중을 줄여서는 안 된다. 도한 머리, 눈, 귀, 어깨, 팔, 다리, 어디든지 왼쪽에 이상이 오거나 심장이나 아래배가 차가우면 몸에 이상이 온 줄 알고 조심해야 한다. 더욱이 왼쪽의 이상이 오른쪽으로 옮겨지거나 얼굴에 검푸른 색이 돌면 이는 심각한 상황이다.

'양'의 체질의 상체 이상은 열로 인해 오고 하체의 이상은 부종과 함께 온다. '음'의 체질인 경우는 상체는 허함이고, 하체는 냉하기 때문이다. '양'의 체질은 열과 비만을 조심해야 하고, '음'의 체질은 냉하고 마르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 즉 둘 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음식에 주의를 기우려야 하고 무엇보다 스트레스와 과로를 피해야 무병장수 할 수가 있다.

3. 벽난로

살아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서양 의학의 기초는 해부학과 현미경이다. 찢어보고 확대해 보자는 것이다. 그런데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장기(臟器)일 뿐, 확인할 따름이지 생명은 볼 수가 없다. 생명이 보이지 않는데 무슨 재주로 다룬다는 말일까? 많은 수의 의사들이 아는 척 해야만 하는 경우의 양심의 괴로움을 토로하고 있다.

살아 있다는 것은 동력(Energy)에 의한 움직임 계속해 있어진다는 것이다. 인간의 인체는 잠을 자는 동안에도 쉼이 없이 움직인다. 움직이려면 당연히 동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에 필요한 인체의 동력은 어디서 얻는 것인가? 동력이 발생하려면 에너지의 원천이 있어야 하고 이 원천은 원료를 연소시키어 에너지를 얻는다. 화력발전소의 원리와도 같은 것이다. 인체에 필요한 이 에너지의 원천은 당연히 음식으로부터 온다. 입으로 먹는 음식이 에너지의 원천인 것이다. 음식은 소화기와 장기를 거치는 동안에 발효 되어 효소로 변환되어 혈관을 타고 살아 있는 인체의 모든 세포에 활동하는 에너지를 공급한다. 세포에 도달한 에너지는 코와 폐를 통해서 역시 세포에 전달된 산소와 결합해서 연소되고 에너지로 변환된다. 그 에너지로 인체는 살아서 움직이고 활동하게 되는 것이다.

만물의 이치는 한 가지이다.

집에 있는 벽난로를 보면서 이러한 이치를 깨닫는다. 이 벽난로가 열을 내자면, 우선 불에 타는 장작이 잘 말라 있어야 하고, 난로의 입구로 공기의 공급이 잘 되어져야 한다. 그래야 지붕의 굴뚝으로 연기가 잘 빠져나가게 되고 완전히 연소된 재만 남게 된다. 이 불탄 찌꺼기만 잘 치워 주면 된다. 그리고 다음 번에도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난로를 공부하자는 말이 아니다.

우리의 인체도 간단히 하나의 원리로 보면 이와 같다고 생각한다.

마른 장작(우리가 반드시 섭취해야 하는 음식)을 태우면 불에 잘 타지만 물에 젖은 장작은 타질 않고 연기(질병)만 날 것이다. 그래서 억지로 태운 장작은 다 타질 못하고 그을러 진 채로 남을 것이기에 치우데 또한 고역이 아닐 수가 없다.

인간의 수명은 본래 적어도 천 년을 살아야 한다. 성서에 보면 평균수명이 900세였던 적이 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하였다.

몸과 마음이 하나되는 진리를 순응해 살면 가능하리라 본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살아 있다지만 한편으로 서서히 죽어 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병도 노화도 없으려면 진리를 따라서 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진리는 무엇인가? 그것은 만물의 이치가 하나임을 깨닫는 것이다.

인체의 최소 단위는 세포이다. 몸 안의 세포는 약 60조 개라 한다. 수명은 약 6개월 간 이다. DNA에 따라 똑 같은 세포를 만들어 놓고 죽어서 체외로 나온다. 이는 땀, 소변, 가래, 눈물 등이 이것이다. 생명공부는 왜 안하고 돈 공부만 하는 세상이 되었는지?

4. 생명운동

생명은 살아 있기에 항상 움직인다. 한자어의 생명(生命)의 의미는 목숨이 새로 태어 난다는 말이다.

생명운동은 선(線)적인 운동이 아니라 원(圓)적인 운동이다. 원은 순환을 의미한다. 세포의 모양도, 지구의 모양도, 우주의 모양도, 물방울의 모양도 다 둥근 것이다. 생명, 즉 스스로 움직이는 것은 모두 다 둥글다. 즉 원(圓)의 운동이다. 생명, 즉 스스로 움직이는 것은 둥굴어서 둥굴게 한다. 실제로 헬스장에서 보면 당기고 뻗고 누르고 하는 모든 운동은 모든 직선운동은 근육을 만들고 키우지만 이는 기를 소모하는 운동이요, 태극권, 태껸, 등의 전통적인 무예는 둥글게 그리는 곡선운동으로 기를 ㄹ모아준다. 그래서 직선운동을 많이 하는 운동선수들의 수명이 길지 못하다.

생명은 육과 영, 즉 음과 양의 합일이지만 편의상 나누어 설명하기로 한다. 성서의 "생명은 피에 있나니"라고 할 때 육(肉)에 무게를 둔 것이다. 생명을 유지하는 피(血)가 혈류를 따라 순환(곡선운동)을 잘 해야 몸이 건강하다는 말이다. 피가 흐르다가 걸리는 곳이 병소(病所)이다. 그런데 이 피를 잘 돌게 하는 것이 곧 기(氣)다. 기 역시 몸 안에서 순환운동을 하는데 그 기를 움직이는 원천은 마음이다. 곧 생각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병의 시작은 곧 마음에서부터이다. 마음이 기의 순환에 영향을 주고, 이 영향이 피의 흐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이 아프면 기와 피의 순환도 영향을 받는 것이다.

기와 혈만 몸 속을 순환하는 것이 아니다. 음식도 몸 안에 들어오면 배설이 까지 잘 돌아야 한다.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는 말도 감정에 따라서 체하지 말고 잘 받아드려서 한 번 더 걸러서 생각하고 유익한 것으로 내어 보내야 한다는 말이다. 음식물도 인스턴트 식품은 지나치게 가공 조미 되어서 몸 안에서 대사가 잘 이루어지질 않고 피를 탁하게 하며 오물을 쌓게 하여 현대인은 생활습관병으로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다. 탁하고 더러운 남의 말에 마음으로 잘 정제하지 못하면 이 또한 기의 흐름을 막아서 기가 막히고, 기가 차서 피의 순환을 막아서 몸의 어디엔가 어혈을 만들어 병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거의 모든 인간은 '많이 가지고 잘 먹고 더 잘 입으려고'하는 욕심에 사로잡혀 있기에 그 일에 목숨을 걸고 살아 간다. 때로는 그 천박한 속성을 감추려고 애 쓰지만 그것은 찰라적인 것이지 영원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말이다.

생명의 실상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길을 알지 못해서 우리는 늘 걱정되나 분명 그 길은 있을 것이다.

석가세존은 깨달음을 말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깨달음을 실천해 보이셨다.

(다음호에 계속)